



## 가을을 붙잡는 3가지 방법

물과 시간은 흐른다는 공통점이 있다. 반드시 흐르며, 한번 흐르면 되돌릴 수 없다. 지나긴 장마와 짐통 무더위도 어느덧 수그러지고 우리 앞에 가을이 왔다. 가을에는 헌책방에서 책을 뒤지며 독서에 빠져도 좋고, 조용한 산속의 미술관을 찾아 사색에 빠져도 좋다. 또 멋진 음악과 공연이 펼쳐지는 야외무대에서 전통 탈춤에 어깨를 들썩여도 좋다. 살피어 안전하다면 바람이 불 때 떠나보자. 되돌릴 순 없지만 가을을 잠시라도 붙잡기 위해.





# 오지마을 헌책방에서 찾은 옛 친구들 단양 새한서점

지난 여름 유난히 사람들을 괴롭혔던 길고도 끈질긴 장마, 잠깐 찾아온 가마솥 무더위도 지나가고 아침저녁으로 가을 기운이 신선한 9월이다. 한여름 들쭉던 가슴을 가라앉히고 나 자신으로 돌아올 때다. 마음에도 양식을 공급해야 할 때다. 번잡한 도심을 피해 오지마을의 헌책방에서 보석 같은 옛 친구들을 만나보는 것은 어떨까.

글 사진 성연재 기자



안녕하세요! <안내사항> 문의: 010-8985-0360

1. 이곳은 헌책을 판매하는 책방입니다. \*쿠팡, 세븐, 인터넷 등 온라인으로 구매하신 책들은 받지 않습니다.
2. 현재 별도 입장을 받지 않습니다. \*고양이, 개, 말라리아 등 동물은 출입하지 않습니다.
3. 커피는 책이 있으면 새한서점 홈페이지를 이용하세요!
4. 이곳은 영업장이니 간단한 생수촬영만 허용합니다. \*촬영 시 인종차별주의를 금합니다.
5. 단체관광객 받지 않습니다. \*출사금지입니다.

저희 서점은 방문할 영지나 관광객이기에 전에 책을 판매하는 서점입니다. 책만 단순히 사진 찍는 소풍으로 취급하거나 서점을 추방기로 생각하시는 방문객들이 많아서 관리가 힘이 듭니다. 조용한 방문을 원합니다. \*휴먼서이  
\*아이들이 다니는 어린이집으로 주유부탁드립니다. \*스프링서이

단양 산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새한서점

### 오지마을의 현채방

충북 단양의 새한서점은 언젠가 한 번 가봐야겠다 마음먹고도 이런저런 이유로 뒤로 미뤄놓았던 곳 가운데 하나다. 어쩌면 내로라하는 단양의 여행지들이 즐비하기 때문일지도 모르겠다. 가을의 문턱에 서니 갑자기 그곳이 가고 싶어졌다. 이름 없는 시골의 현채방이던 단양군 적성면 현곡리의 새한서점은 영화에 등장하면서 본격적으로 알려졌다. 영화 '내부자들'에서 우장훈 검사(조승우 분)의 아버지 집으로 나오는 장소가 바로 이곳이다.

단양C에서 나와 충주호를 끼고 달리다 보니 폭우가 만들어낸 운무가 장관을 이룬다. 오지마을에 자리한 서점은 길 찾기가 쉽지 않다. 10여 분 달리다 보면 현곡리 이정표가 나온다. 현곡리 마을에서 꼬불거리는 시골길을 조금 더 달리면 새한서점 입간판을 만날 수 있다. 이곳에 차를 세운 뒤 오른쪽 밑으로 난 좁은 길을 걸어 내려가면 새한서점이다.

길 초입, 잘 익은 블루베리가 방문객을 맞는다. 서점 가는 길은 몹시 꼬불거렸고, 때마침 전국에 내린 폭우로 완전히 진흙길이다. 어떻게 이런 곳에 현채방이 있을까 궁금해졌다. 끝 무렵에 길은 사람 하나 겨우 지나갈 수 있는 오솔길로 좁아진다. 길 끝에서 시냇물 소리가 청명하게 들려왔다. 폭우가 내렸지만 시냇물은 넘치지 않았고, 상쾌한 소리를 들려줄 정도의 수량을 유지했다. 그 시냇물 건너, 파란 지붕의 나무로 된 건물이 서 있다.

물 위에 놓인 나무다리를 건너면 바로 서점의 2층이다. 2층 문 앞의 테이블과 의자가 있고 그 밑으로 계곡이 한눈에 보인다. 이곳에 앉아 맘에 드는 책을 골라 읽을 수 있다면 얼마나 큰 행복일까. 문을 열고 들어가니 신간 서적을 파는 작은 테이블이 있고, 오른쪽 소파에는 한 여성이 앉아 책을 읽고 있다.

1층으로 향하는 나선형 나무계단을 타고 내려가니 계산대가 있다. 창 바깥으로 흐르는 시냇물이 보인다. 흥미로운 것은 그 시냇물을 건물 안으로 끌어왔다는 거다. 실내 바닥 돌 틈에 만들어진 웅덩이로 농수관을 통해 시냇물을 끌어와 '모히토' 음료수를 담가놓았다. 모히토는 쿠바 아바나에서 만들어진 칵테일 음료로 헤밍웨이가 즐겨 마신 것으로 유명하다. 영화 '내부자들'에서는 정치 깡패 안상구 역할을 한 이병헌이 "모히토에 가서 몰디브나 마실까요?"라는 대사를 했다. 그 이후 몰디브를 간 사람들이나, 새한서점을 간 사람들은 유행처럼 모히토를 주문한다. 힘겹게 시골길을 걸어온 뒤 마시는 모히토 한 잔. 얼음은 없지만 시원한 계곡물이 만든 청량감이 그대로 전해졌다. 폭우와 무더위도 있었다.



1 운무에 싸인 충주호 2 블루베리가 익어가는 오솔길 3 서점 건물 안으로 끌어들이는 계곡물에 담긴 모히토



- 1 정량한 계곡물을 바라볼 수 있는 현책방
- 2 고양이는 이 현책방의 터줏대감이다.
- 3 새 책이 전시된 판매대

**‘인생 샷 말고 인생 책 고르시길...’**

현책방 내부에서는 사진 촬영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휴대전화로 몇 장 찍는 정도만 허용된다. 책방 곳곳에는 ‘책은 사진 촬영을 위한 소품이 아니다’라는 문구가 붙어있다. ‘인생 샷 말고 인생 책 고르시길...’이라는 말은 무릎을 탁 치게 만든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더니 모히토 한 잔을 마시고 난 뒤에서야 책이 눈에 들어왔다. 계곡을 따라 지어진 건물 내부를 내려가면 현책방 특유의 쿼터한 내음이 전해져온다. 바닥도 흙바닥이라, 조심해서 걸어야 먼지가 나지 않는다. 처음에는 눈으로 책을 훑다가 이어 양손으로 현책의 촉감을 느끼며 책장 사이를 걸었다. 그러다 문득 책 한 권이 눈에 들어왔다. 웨스턴 영어사전이었다.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옛 친구와 우연히 마주쳤을 때의 반가움이었다. ‘자네가 여기 이렇게 있었구만... 오랫동안 찾아보지 못해 미안하네’ 딱 이런 느낌이다.

사람이 교감하는 건 생물만이 아님을 새삼 깨닫는다. 오랜 시간 함께 한 자동차가 중고차 매매상에 실려 갈 때의 느낌을 우리는 기억한다. 새한서점에서 만난 책들이 그랬다. 한권엔 낡은 내셔널지오그래픽 영문판이 무더기로 쌓여있다. 대학교 도서관에서 감탄하며 탐독했던 일이 떠올랐다. ‘그때는 정말 열정을 갖고 살았는데...’ 현책은 그 시절의 ‘나’를 연거푸 소환했다.

서점 중앙의 오른쪽 복도 한쪽에 나무문이 있었다. 걸쇠를 빼니 쉽게 문이 열린다. 마치 비밀의 통로로 향하는 문을 연 느낌이다. 문이 열리니 계곡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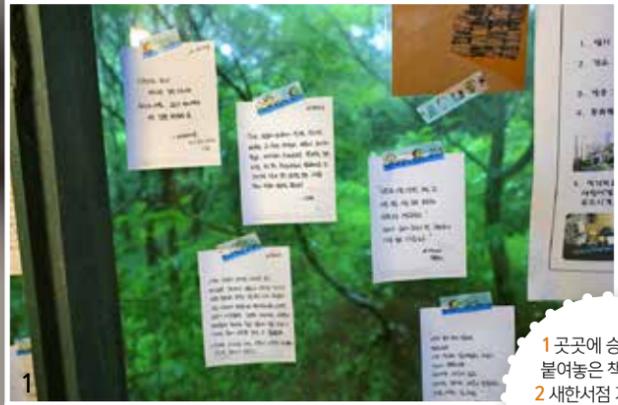
소리가 썩~하고 들려온다. 두 명 정도가 서 있을 수 있는 나무 발코니였는데, 이미 한 여성이 서서 책을 읽고 있었다. 언제 어디서든 책에 몰입한 모습은 아름답다.

서점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다양한 장르의 책들이 많았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 같은 책도 보였고, 얼마 전에 작고한 김종철 교수가 발행인으로 있었던 녹색평론 같은 잡지도 빼곡히 들어차 있었다. 이토록 다양한 종류의 책들에 놀랐는데 새한서점의 연혁을 알고 나니 고개가 끄덕여진다. 주인 이금석 씨는 1978년 현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인근에 지금과 같은 새한서점이라는 상호로 문을 연 이후 답십리 등을 거쳐 안암동 고려대 앞에서 20년 넘게 헌책방을 운영했다. 그랬기 때문일까, 지금도 사회과학 서적과 이공계 관련 헌책이 많이 눈에 띈다.

1980년대 전성기를 맞았던 헌책방은 1990년대부터 내리막을 걷기 시작했다. 이씨는 이때 온라인 판매에 눈을 뜨게 됐다. 시골에서도 택배로 물건을 판매할 수 있겠다는 판단으로 2002년 단양으로 옮겨왔다. 처음에는 폐교된 적성초등학교에서 7년간 문을 열었다. 이후 폐교가 매각되자 지금의 자리를 어렵게 구했다. 손으로 모든 건물을 지었다. 나무 널빤지로 된 건물은 900㎡ 가까이 늘어났고, 모두 670종 13만 권이 진열돼 있다.

1 한 여성이  
풍경을 즐기며 책을  
고르고 있다. 2 오래된  
내셔널 지오그래픽 영문판  
잡지 3 북한 관련  
서적들





- 1 곳곳에 승준씨가 붙여놓은 책 메모들
- 2 새한서점 기념품들
- 3 쿨쿨한 책의 향기가 풍기는 새한서점 내부



### 헌책방에서 로컬 문화의 메카로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된 것은 아들 승준씨 손에 의해서다. 스포츠 마케팅 쪽 일을 하던 승준씨는 헌책 판매에만 의존해서는 서점의 미래가 없다고 판단, 몇 년 전 귀촌해 새한서점이라는 이름을 브랜드화하고 다양한 문화사업을 시작했다. 그는 산더미처럼 쌓여만 있던 책을 정리해 지금의 모습을 만들었고 동시에 단양 읍내에 2호점을 냈다. 이곳에 '새한서점 삼단양노트'라는 이름을 붙인 뒤 시인과 소설가 등 작가들을 초청하기도 하고, 미술 작가들의 힘을 빌려 새한서점 뿐만 아니라 단양의 명소를 나타내는 기념품도 만들어 판매한다.

승준씨는 자신의 활동을 '로컬 크리에이터'라고 설명한다. 로컬 크리에이터는 지역의 문화나 고유한 특성을 콘텐츠화해 경제적·



문화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말한다. 로컬푸드를 만들거나 지역 특색을 반영한 제조업을 하거나 스마트관광 등을 추진하는 것도 포함된다. 그는 최근 창업진흥원에서 뽑는 전국의 144명의 로컬 크리에이터 가운데 한 명으로 선정됐다. 단양에서는 그가 유일하다. 그는 그 지원금으로 단양을 표현할 수 있는 기념품 등을 만들고 있다고 한다. 새한서점에만 그치지 않고 단양의 모든 자원을 브랜드화하겠다는 것이다.

새한서점 삼단양노트는 단양전통시장 바로 앞에 있다. 나오는 길에 시장 바로 앞 유명 만두집에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다. 미늘 만두를 파는 곳으로 인스타그램 등에서 유명세를 톡톡히 치르고 있는 곳이다. 마음의 양식을 채울 헌책방에도 많은 사람이 줄을 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2



1 로컬 크리에이터로서의 포부를 말하는 승준씨 2 단양 전통시장 앞에 차려진 '새한서점 삼단양노트'에 새한서점 기념품들이 전시돼 있다. 3 단양 전통시장의 명물 마늘만두집 앞에 늘어선 줄 4 마늘만두

4



## 산속 미술관에서 사색과 명상에 잠기다 뮤지엄 산

자연은 그 자체로도 아름답지만, 인간이 만든 조형물과 어우러질 때 더 큰 울림을 주기도 한다. 고즈넉한 산속에 자리 잡은 '뮤지엄 산'은 그런 울림을 선사하는 공간이다. 자연과 건축, 예술이 하나로 어우러진 풍경 속에서 사색과 명상에 잠길 수 있다.

글 김희선 · 사진 전수영 기자





1

오랜만에 뮤지엄 산을 찾은 날, 비가 종일 오락가락했다. 우중충한 날씨가 관람을 방해할 것이라는 걱정은 기우였다. 운무에 덮인 산과 정원, 빗물을 머금고 한층 깊어진 돌벽의 빛깔, 명상의 운치를 더해주는 빗소리... 맑은 날 보지 못한 또 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었다.

### Space, Art, Nature

서울에서 1시간 30분가량 떨어진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해발 275m의 그리 높지 않은 산 정상 7만여㎡의 부지에 뮤지엄 산이 자리 잡고 있다. 이름 그대로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산의 품에 안긴 미술관 겸 박물관이다. 한솔문화재단이 세계적인 건축가 안도 다다오에게 설계를 의뢰해 2013년 건립했다. 산(SAN)이라는 이름은 공간(Space), 예술(Art), 자연(Nature)의 영문 첫 글자를 딴 것이기도 하다. 건축(공간)과 예술과 자연이 하나로 어우러진 장소를 의미한다. 이곳에서는 내부에 전시된 유물과 작품뿐 아니라 안도 다다오가 설계한 건물과 정원도 눈여겨보아야 한다. 박물관·미술관 투어와 별도로 건물과 정원에 대해 설명하는 건축 투어가 마련되어 있을 정도로 공간 자체가 중요한 관람 포인트다.

매표소가 있는 웰컴센터에서 나와 돌담을 따라 입구로 들어서면 드넓은 정원이 펼쳐진다. 뮤지엄 본관 건물 주변에 조성된 네 개의 테마 정원 중 꽃을 주제로 한 '플라워 가든'이다. 정원을 둘러싼 산과 진홍빛 패랭이꽃이 수 놓인 잔디, 그 위에 우뚝 서 있는 거대한 붉은색 조형물. 탄성을 자아내는 풍경이다. 강렬한 붉은색 조형물 덕분에 초록빛 자연의 생동감이 더욱 살아난다. 언뜻 보면 팔 벌리고 서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이 작품은 새를 형상화한 마크 디 수베로의 작품이다. 제라드 먼리 홉킨스의 시 '황조롱이 새'에서 영감을 받아 커다란 날개를 펼치고 하늘로 비상하는 황조롱이 새를 표현했다. 이 작품이 진가를 발휘하는 순간은 바람이 불 때다. 팔처럼 보이는 아치 부분이 상하좌우로 빙글빙글 돌면서 마치 새가 날갯짓하는 것 같은 인상을 준다.



2

1 플라워 가든의 붉은색 조형물 '제라드 먼리 홉킨스를 위하여': 홉킨스의 시 '황조롱이 새'에서 영감을 받아 만든 마크 디 수베로의 작품이다.  
2 플라워 가든과 워터 가든을 연결하는 자작나무 숲길



위에서 내려다본 뮤지엄 산의 전경. 워터가든이 건물 전체의 3분의 2가량을 감싸 안고 있어 건물이 마치 물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인다.



1



2

1 붉은색 조형물 '아치형 입구'가 마치 물에 떠 있는 듯 서 있는 워터가든  
2 건물 벽 일부에 가로로 길게 난 독특한 형태의 창. 건물 내에서 워터가든을 다른 각도로 바라보게 해 준다. 3 카페 야외와 연결된 워터가든의 풍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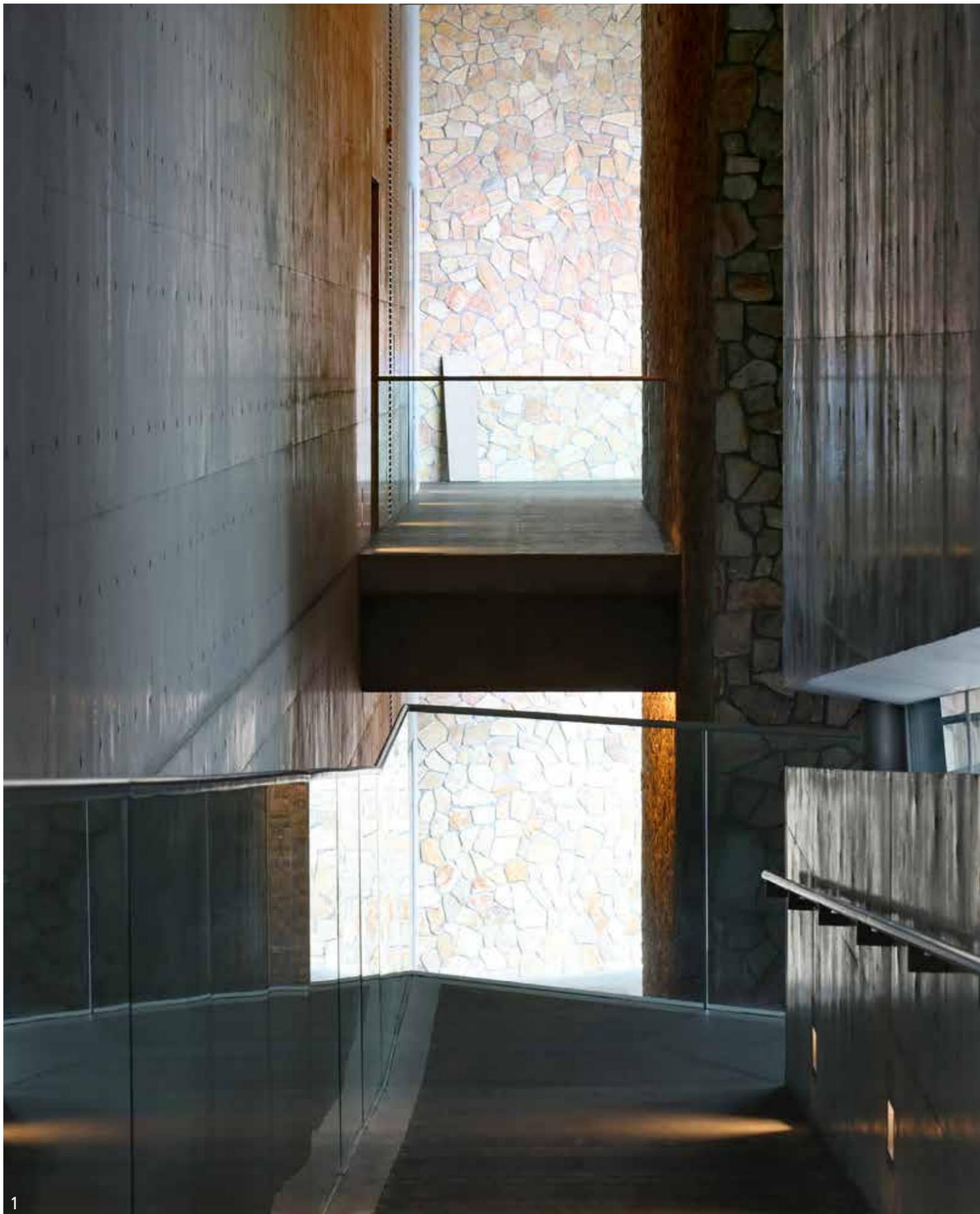


3

광활한 플라워 가든은 좁은 자작나무 숲길로 이어진다. 180여 그루의 자작나무가 수국, 부용화 등과 어우러진 오솔길이다. 상쾌한 공기를 마시며 오솔길을 걷다 보면 콘크리트 담과 돌담이 십자로 겹친 또 하나의 게이트를 만나게 된다. 게이트를 통과하면 담에 가려져 있던 '워터 가든'이 눈 앞에 펼쳐진다. '와~'하는 감탄사가 또 한 번 나오는 순간이다.

워터 가든은 바닥에 검은 자갈을 깔고 물을 채워 만든 수(水) 공간이다. 총 1천500평에 달하는 '워터 가든'이 뮤지엄 본관 건물의 3분의 2가량을 감싸 안고 있어 마치 건물이 물에 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맑은 날에는 수면 위로 미술관 건물과 주변의 아름다운 자연이 그대로 비친다. 워터 가든의 비현실적인 풍경을 완성하는 것은 알렉산더 리버먼의 작품 '아치형 입구'(Archway)다. 아치 모양의 거대한 붉은색 조형물이 마치 물 위에 떠 있는 듯 서 있다. 열두 조각의 강철 파이프를 이어붙여 만든 작품으로, 뮤지엄 본관으로 들어가는 관문 역할을 한다.

플라워 가든에서 자작나무 숲길로, 워터 가든으로 공간이 바뀔 때마다 극적인 장면 전환이 이뤄지면서 관람객의 탄성이 나오는 것은 안도 다다오의 설계 덕분이다. 그는 한정된 부지 안에서 다양한 시각적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동선을 일부러 복잡하게 구부리고 의도된 벽과 담을 설치했다. 하나로 이어진 여러 공간을 한 번에 보여주지 않고 담으로 시선을 적절히 차단해 차례로 하나씩 보여주는 것이다. 담에 뚫린 좁은 입구를 지나 확 트인 정원을 만나는 순간 관람객이 느끼는 극적인 효과는 배가된다.



1



2

1 여러 개의 전시실이  
미로처럼 연결된 뮤지엄  
본관 내부 2 뮤지엄 본관은  
건물 네 개 등이 각각 사각, 삼각,  
원형의 중정으로 연결된 구조다.  
3 2층 복도에서 큰 창을 통해  
바라본 워터가든



3

###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다

본관 건물 외벽은 안도 다다오가 즐겨 쓰는 노출 콘크리트가 아니라 누런빛의 자연석으로 마감되어 있다. 덕분에 산으로 둘러싸인 주변 풍경과 이질감 없이 잘 어우러진다.

본관을 위에서 내려다보면 2층 건물 네개 등이 각각 □, △, ○ 모양의 중정으로 연결된 형태다. 방대한 야외 정원 못지않게 규모가 상당해 구석구석 제대로 보려면 시간이 제법 걸린다. 각 동은 돌로 된 커다란 박스 안에 노출 콘크리트로 된 여러 개의 작은 박스(전시실)가 들어 있는 구조로 이뤄져 있다. 종이 박물관인 페이퍼갤러리 4개관, 미술관인 청조갤러리 4개관, 판화 체험을 할 수 있는 판화 공방, 안도 다다오의 건축 세계를 소개한 안도 코너 등 여러 개의 전시실이 1층과 2층을 오가며 마치 미로처럼 연결되어 있다.

전시실에서 나와 다음 전시실로 향하는 복도는 한 템포 쉬어가는 공간이다. 잠시 벤치에 앉으면 창밖으로 자연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진다. 종이 박물관 1전시실 관람을 마치고 나오니 커다란 창 너머로 워터 가든이 보였다. 2층에서 창을 통해 내려다본 정원은 아래에서 본 것과는 또 다른 모습이다. 거대한 '아치형 입구'가 물 위에 그대로 비쳐 마치 데칼코마니처럼 보인다. 야외 정원을 지나며 봤던 풍경들도 이처럼 건물 내부에서 창을 통해 다른 각도로 바라보면 새롭게 다가온다. 건물 내부의 복잡한 동선에도 건축가의 의도가 숨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페이퍼갤러리와 청조갤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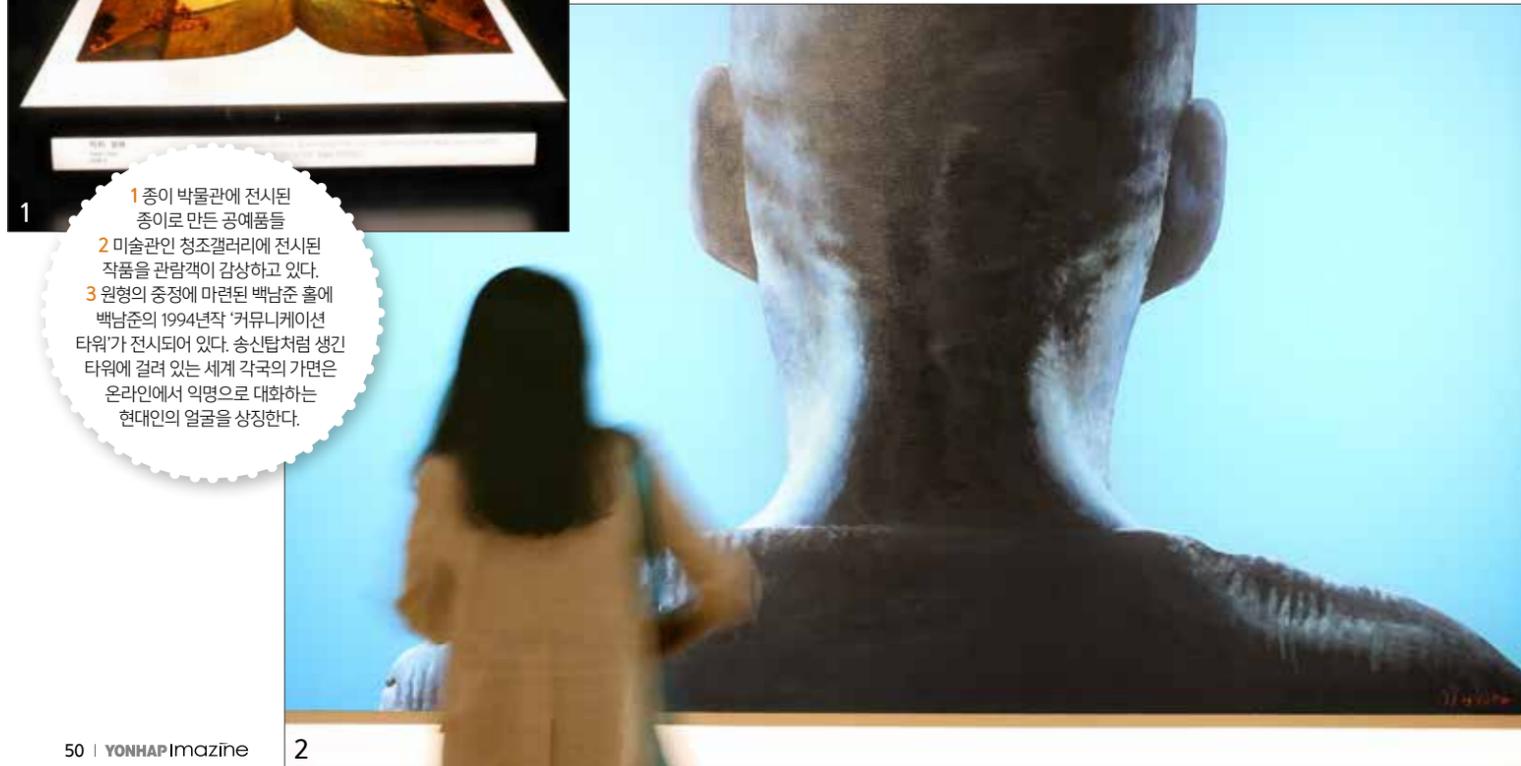
본격적인 뮤지엄 내부 관람은 종이 박물관에서 시작해 판화 공방, 미술관으로 이어진다. 종이 박물관은 2층의 정사각형 중정에 위치한 파피루스 온실에서 시작한다. 고대 이집트에서 파피루스지를 만들 때 쓴 식물 파피루스를 4계절 내내 볼 수 있도록 조성한 공간이다. 이어지는 네 개의 전시실에서는 종이의 역사와 함께 종이로 만든 다양한 유물을 볼 수 있다. 두 번째 전시실은 조선 시대까지 사용했던 다양한 한지 공예품을 볼 수 있는 공간이다. 종이를 구긴 다음 기름칠을 해 만든 귀주머니,

종이에 옷칠해 방수 효과를 낸 조족등(밤길 발밑을 비추는 등) 등 종이의 다양한 쓰임새를 보여주는 유물 12점이 전시되어 있다.

가장 흥미로웠던 것은 종이로 만든 요강이다. 혼례를 치르러 먼 길을 떠나는 신부가 가마 안에서 사용했던 것이라고 한다. 방수를 위해 기름칠한 종이로 만들었는데, 실제 사용할 때는 안에 여러 겹의 천을 덧대 썼다고 한다. 종이로 만들어 가볍고 소리가 잘 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종이 박물관 관람을 마치고 1층으로 내려가면 판화 공방이 있다. 판화 작품을 통해 다양한 판화기법을 접하고 직접 체험도 할 수 있는 공간이다. 판화 공방은 4개의 미술 전시실로 구성된 청조갤러리로 이어진다. 평소 미술에 관심이 많았던 고 이인희 전 한솔그룹 고문이 평생 모은 컬렉션을 볼 수 있는 공간이다.

원형의 중정에 마련된 백남준 홀은 미술 전시실 가운데 가장 인기 있는 공간이다. 한솔문화재단이 소장한 비디오아티스트 백남준의 작품 10여점이 주기적으로 교체돼 전시된다. 9.5m 높이의 천정에 뚫린 둥근 유리창을 통해 들어오는 햇빛이 드라마틱한 분위기를 더한다. 상설전시관에서는 국내 거장의 회화를 다양하게 접할 수 있다. 재단이 소장한 이중섭, 김환기, 박수근, 김창열 등 거장들의 작품이 1년여 주기로 번갈아 전시된다.



- 1 종이 박물관에 전시된 종이로 만든 공예품들
- 2 미술관인 청조갤러리에 전시된 작품을 관람객이 감상하고 있다.
- 3 원형의 중정에 마련된 백남준 홀에 백남준의 1994년작 '커뮤니케이션 타워'가 전시되어 있다. 송신탑처럼 생긴 타워에 걸려 있는 세계 각국의 가면은 온라인에서 익명으로 대화하는 현대인의 얼굴을 상징한다.





1 ©James Turrel, Photo by Florian Holzherr

2

- 1 제임스터렐관에서 만날 수 있는 설치작품 '호라이즌 룸'
- 2 뮤지엄 본관 2층에서 내려다본 스톤 가든의 모습. 신라 고분을 모티브로 한 돌무덤 형태의 조형물 9점이 조각 작품들과 어우러져 있다.
- 3 돔 형태의 명상관 내부. 반원 모양으로 길게 난 창을 통해 들어오는 빛이 시시각각 다른 모양을 만들어낸다.

**+ INFORMATION**

● **운영시간**  
 뮤지엄 10:00~18:00 제임스터렐관 10:30~17:30  
 명상관 10:45~17:15 \*휴관일 월요일

● **관람요금**  
 뮤지엄권(야외가든+종이 박물관+미술관) 성인 1만8천원, 소인(초중고) 1만원  
 명상권(뮤지엄권+명상관) 성인 2만8천원, 소인 1만8천원

제임스터렐관(뮤지엄권+제임스터렐관) 성인 2만8천원, 소인 1만8천원  
 통합권(뮤지엄권+제임스터렐관+명상관) 성인 3만8천원, 소인 2만6천원

주소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오크밸리2길 260  
 문의 ☎ 033-730-9000

### 명상과 사색의 공간

청조갤러리까지 내부 관람을 모두 마치면 다시 야외로 나오게 된다. 돌을 테마로 한 정원 '스톤 가든'이다. 신라 고분을 모티브로 해 만든 돌무덤 형태의 조형물 9개가 조각 작품과 어우러져 구불구불한 산책로를 따라 이어진다. 낮게 깔린 선율을 들으며 고즈넉한 분위기의 산책로를 걸다 보면 저절로 사색과 명상에 잠기게 된다.

여러 개의 돌무덤 중 하나는 개관 5주년을 기념해 2019년 새로 만든 명상관이다. 이곳 역시 안도 다다오가 설계했다. 돔 형태의 내부 공간에 들어서면 반원 모양으로 길게 난 창을 통해 쏟아지는 빛과 풍성하게 울리는 소리에 자연스럽게 경건한 마음이 든다. 명상관이 포함된 관람권을 구입하면 매일 시간대별로 열리는 명상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비 오는 날이라 아쉽게도 빛이 만들어낸 무늬는 볼 수 없었다. 하지만 창 위로 떨어지는 빗소리가 맑게 울려 퍼지며 명상의 운치를 더했다.

스톤 가든 끝자락에는 뮤지엄 산의 마지막 전시관인 제임스 터렐관이 있다. '빛의 마술사'로 불리는 세계적 설치미술가 제임스 터렐의 다섯 작품을 만날 수 있다. 터렐의 작품은 빛과 공간을 재료로 한다. 프로그램에 의해 세밀하게 조정된 자연광이나 인공광을 공간에 투입해 작품을 만든다. 작품은 공간 속에서 빛을 바라보는 관람객의 경험을 통해 비로소 완성된다.

5개의 작품 모두 신비로운 경험을 선사하지만,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간츠펠트'다. 동굴 같은 공간에 50여 가지의 색으로 구성된 LED 조명을 순차적으로 살포하면서 관객에게 착시 현상을 일으키는 작품이다. 세밀하게 조정된 LED 조명 덕분에 땀 흘려 있는 공간이 막혀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넓은 공간이 좁고 답답한 공간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막혀 있는 듯 보이는 출입구를 통해 작품 속으로 들어간 관람객은 좁아 보이던 공간이 무한히 확장되는 경험을 하면서 스스로 질문을 던지게 된다. 내가 보고 느끼는 것이 과연 참일까 허상일까? 나는 허상에 사로잡혀 진실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 노천을 가르는 선율, 그리고 한바탕 놀이

# 안동의 가을

감염병이 몰고 온 혼란 속에서도 자연과 계절은 어김이 없었다. 봄, 여름이 지나고 어느덧 가을이다. 멋진 음악과 공연이 펼쳐지는 야외무대에서 가을에 젖어 보자.

글 현경숙 · 사진 조보희 기자



1

### 가을에 어울리는 무대...야외 음악과 공연

“내 편지 보시고 내 꿈에 와서 자세히 말해 주세요. 꿈속에서 당신 말을 자세히 듣고 싶어서 이렇게 써서 넣어 드립니다.”

소리꾼이 ‘원이 어머니 편지’ 한 구절을 읽는다. 가야금과 대금이 슬픈 배경 음악인 ‘시린 가을’을 연주한다. 연주가 끝나면 소리꾼이 ‘꿈에서 만나다’라는 퓨전 국악 곡을 부른다. 판소리 아니리가 이어진다. 아니리는 판소리 사설의 일종이다.

여름이 막바지에 다다른 어느 토요일 아침나절, 안동문화예술의 전당 야외공연장에서 열린 퓨전 국악 ‘몽(夢)매(賣)난(難)망(忘)’의 한 장면이다. 원이 어머니 편지는 조선 중기인 1500년대 쓰인 한글 편지다. 아내가 먼저 세상을 뜬 남편을 그리워하는 내용이다. 1998년 안동에서 발굴됐다. ‘몽(夢)매(賣)난(難)망(忘)’은 지역 음악인들로 구성된 예악국악단이 이 편지를 소재로 만든 작품이다.

나무 밑 그늘에 웅기종기 앉아 연주에 빠져든 관객들의 표정은 진지했다. 편안한 옷차림의 관객들은 대개 인근 주민들로 보였다. 아기를 유모차에 태우고 나온 30대 여성, 대어섯 살로 보이는 어린이, 나이 지긋해 보이는 어르신도 눈에 띄었다. 공연이 무르익어가면서 관객이 하나둘 더 늘어났다. 연주에 동참하기라도 한 듯 매미와 참새도 제법 큰 소리로 울어댔다. 문화의 향기가 느껴지는 편안하고 차분한 주말 아침이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어느새 가을의 문턱에 섰다. 지난날을 돌아보고 다가올 시간을 가늠해볼 계절이 성큼 다가왔다. 올해 가을은 역병과 싸우는 고단하고 지루한 나날을 이기기 위해 음악과 공연의 활력이 필요할지 모르겠다. 바이러스 전파력을 한풀 더 꺾을 수 있는 야외라면 더 힘이 될 것이다.

파란 하늘 드높은 가을이 깊어지면 대기의 청량한 기운에 의지해 곳곳에서 야외 공연이 펼쳐질 테다. 안동문화예술의 전당도 그런 곳 중 하나다. 올해 개관 10주년을 맞은 안동문화예술의 전당은 이번 가을 내내 매주 토요일 야외 공연을 연다. 대중음악, 클래식, 풍물, 크로스오버 등 장르가 다양하다. 출연진은 모두 공모를 통해 선정된 지역 음악 단체들이다. 시민에게는 문화 향유의 기

- 1 안동문화 예술의 전당
- 2 안동문화예술의 전당 토요 야외공연 알림판
- 3, 4 퓨전 국악 공연 '몽(夢)매(賣)난(難)망(忘)'



2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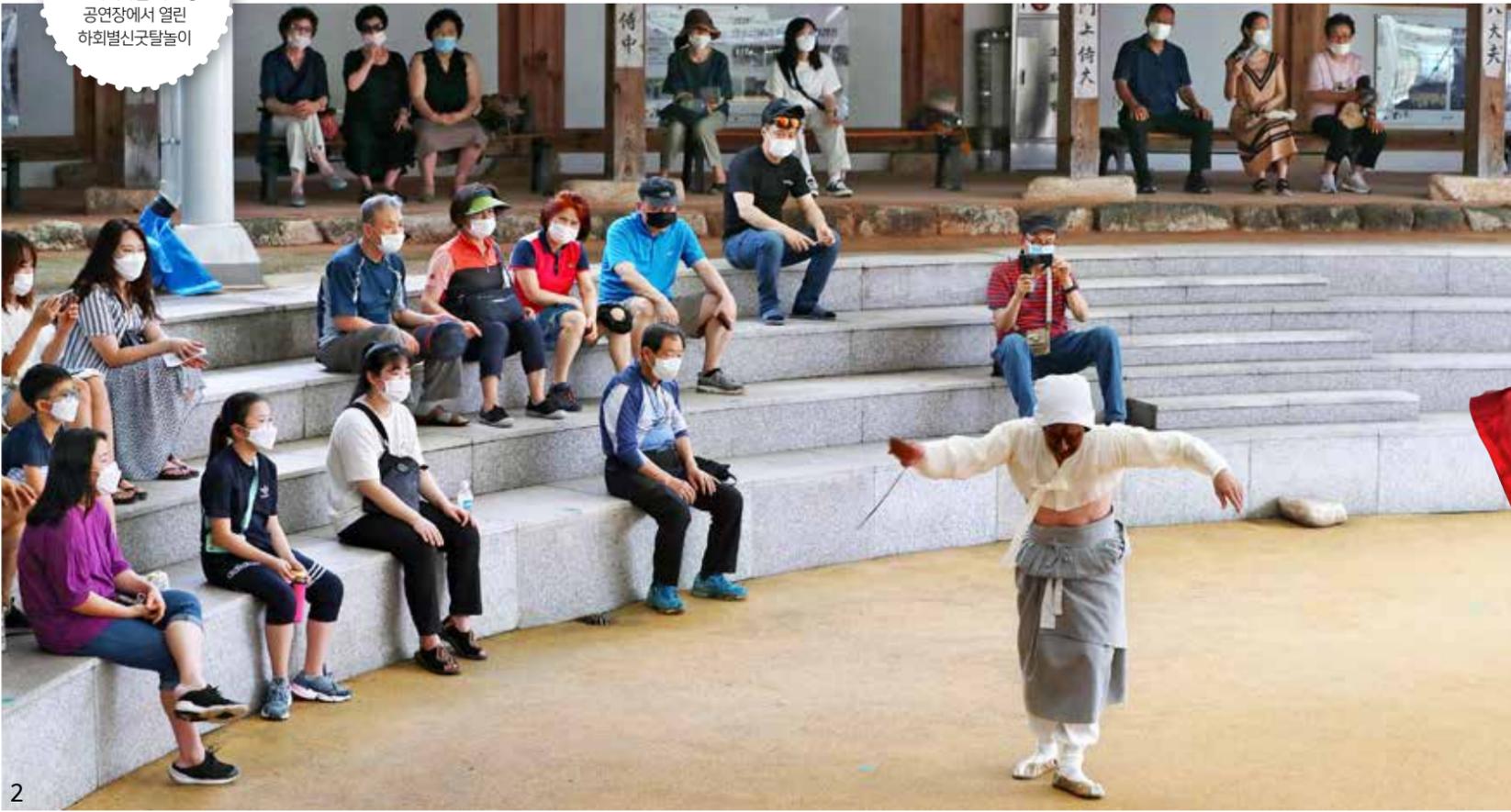
회를, 지역 음악인에게는 재능을 펼치고 역량을 높일 수 있는 무대를 제공한다. 작은 물이 방울방울 모여 큰 바다가 되듯, 하나하나의 문화 활동이 쌓여 지역 문화를 이룰 것이다. 안동문화예술의 전당에서는 9월에 국립국악관현악단과 함께 하는 ‘여민동락’, 뮤지컬 앙코르 공연 ‘브로드웨이 42번가’ 등 수준 높은 공연이 무대에 오르고, 10월에는 국립합창단과 안동시립합창단의 합동 공연이 예정돼 있다. 연말에는 국립오페라단의 ‘라보엠’이 공연되는데 안동 어린이합창단이 전막 공연을 펼친다.



4



1  
 1 부용대에서 본 하회마을  
 2 하회마을 내 전용 공연장에서 열린 하회별신굿탈놀이



2

**세상을 보는 특별한 시선...하회별신굿탈놀이**

전통과 문화의 도시,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를 자처하는 안동에는 세상을 보는 또 다른 시선이라고 할 수 있는 특별한 공연이 있다. 유네스코 지정 세계유산인 하회마을에서 펼쳐지는 하회별신굿탈놀이이다. 코로나19 사태가 악화하지 않으면 가을에도 하회마을 내 전용 공연장에서 월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열릴 예정이다. 공연장은 천막 지붕이 씌워져 있어 비와 바람을 피할 수 있다.

평일인데도 가족, 연인 사이로 보이는 관객들이 공연장을 채운 가운데 각시탈을 쓴 광대가 풍물패의 흥겨운 연주 속에 무동을 타고 공연장으로 들어왔다. 관객들의 눈길이 일제히 각시탈로 향했다. 요란한 팽과리, 징, 북 소리에 아이들마저 무대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이어 암수 한 쌍의 주지가 삼베 포대기를 덮어쓰고 등장해 마주 보며 춤을 추고, 서로 싸우기도 한다. 주지는 이무기를 말한다. '주지 마당'은 탈놀이가 벌어지는 탈 판을 정화하는 의미를 갖는다. 백정이 양반의 위선을 비판하는 '백정 마당', 평생을 궁핍하게 산 할멈이 신세타령을 하는 '할미 마당', 고려 시대 말 불교의 타락을 고발하는 '파계승 마당', 양반과 선비가 기생을 놓고 다툼을 벌이는 '양반 선비 마당'이 차례로 펼쳐졌다.

전주에서 왔다는 여성 관객이 걸립(구걸)하는 백정에게 5만원짜리 지폐를 건넸다. 출연자와 관객 사이에 상호작용과 교감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다. 안동은 선비 정신이 강한 고장이지만 전주가 안동보다 더 품위 있는 양반 마을이라고 백정은 전주를 치켜세웠다. 출연자와 관객의 호응은 공연 중간중간에 적지 않게 일어났다. 백정이 소를 잡으려 하자, 관객은 소를 향해 "달아나, 도망가"라고 외쳤고, 흥겨운 풍물놀이패 연주에 아이들은 어깨를 들썩이며 손뼉을 쳤다. 공연을 지루해할 수 있는 아이들도 즐길 수 있는 문화가 흥겨운 국악이나 전통 놀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회탈놀이는 신나고 재미있다. 특히 놀이의 핵심 도구인 하회탈은 민속놀이 도구에서 보기 드문 높은 예술성을 갖추고 있다. 탈을 보면 그 표정이 생생히 살아있고 풍부함을 누구나 느낄 수 있을 것이다. 하회탈은 12세기쯤에 14개가 나무로 제작돼 11개가 지금까지 보존돼 있다. 하회마을 선조들은 별도의 집(洞舍)을 지어 800여 년 동안 탈을 보존해 왔다. 하회탈의 탁월한 예술성을 알아본 결과이리라.

그러나 하회탈놀이의 특별한은 무엇보다 이 놀이를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하는 시대·사회 의식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인, 백정, 여성 등 피지배 혹은 억압받는 계층은 양반, 선비, 스님 등 지배 계층의 타락과 신분 질서의 모순을 신랄하게 비판한다. 우리의 전통 예술 작품 중 사회 모순과 갈등을 이처럼 선명하게 지적한 작품이 또 있을까. 이 땅의 선인들은 억압의 굴레를 끊지 못했음장정 그 부당함을 간과하지 않았음을 입증한다.

하회탈놀이는 신분질서의 모순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다. 하회마을의 양반들은 5년, 10년에 한 번씩 하던 이 마을 축제의 비용을 부담했다. 그렇게 해서 탈놀이는 신분 갈등을 드러내는 동시에 풀어내는 기능을 했다.

하회마을 놀이문화에는 탈놀이와 쌍벽을 이루는 선유줄불놀이가 있다. 이는 낙동강변 기암절벽인 부용대에서 선비들이 음력 7월에 했던 뱃놀이, 줄불놀이, 계란불놀이를 일컫는다. 부용대 꼭대기와 강변 소나무밭인 만송정을 동아줄로 연결하고 동아줄에 수백 개의 숯 봉지를 매달아 불을 붙였다. 숯 봉지가 차례로 타들어 가면서 밤하늘을 은은하게 밝히는데 이를 '줄불'이라고 했다.

경상북도는 올해 하회마을의 세계유산 지정 10주년을 기념해 '2020 세계유산축전'을 안동, 경주, 영주에서 8월 한 달 동안 열었다. 개막일이었던 7월 31일 빗방울이 흠날리는 속에 줄불놀이가 열렸다. 시민들은 밤하늘을 수놓은 줄불의 신비스러움에 넋을 잃은 듯했다.

하회탈놀이가 벌어진 해에는 줄불놀이도 열렸다. 상민과 노비들이 줄불 동아줄

1 하회마을에 있는 풍산 류씨 대종가인 양진당(보물 제306호)  
2 하회마을 고택 사이의 골목길



설치 작업을 떠맡는 등 양반들의 놀이를 위해 노역을 마다하지 않았다. 하회마을에서는 계층 갈등 속 융화라는 통찰과 지혜의 전통이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음을 알 수 있다. 하회마을 놀이에는 세상을 보는 혜안이 녹아 있다.





### 낙동강이 굽이쳐 휘돌아가는 아름다운 고장, 안동

학문과 예의를 숭상해 유교 문화의 맥을 잇고, 민속문화의 보고이기도 한 안동의 아름다움은 새삼 언급할 필요가 없다.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1999), 고(故) 노무현 대통령(2007), 조지 허버트 워커 부시 전 미국 대통령(2008), 조지 워커 부시 전 미국 대통령(2009),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2016), 문재인 대통령(2017) 등 국가 수장급 인사들이 다녀갔다. 안동이 간직한 문화재는 국가 지정 문화재 99개, 도 지정 문화재 229개 등 328개에 이른다. 이중 하회탈, 서애 류성룡 선생의 '징비록' 등 5점은 국보다. 하회마을, 병산서원, 도산서원, 유교책판, 봉정사 등은 유네스코 지정 세계유산이다. '연합이매진'은 지난해 병산서원과 도산서원을 소개한 바 있다.

부용대에서 펼쳐진 선유줄불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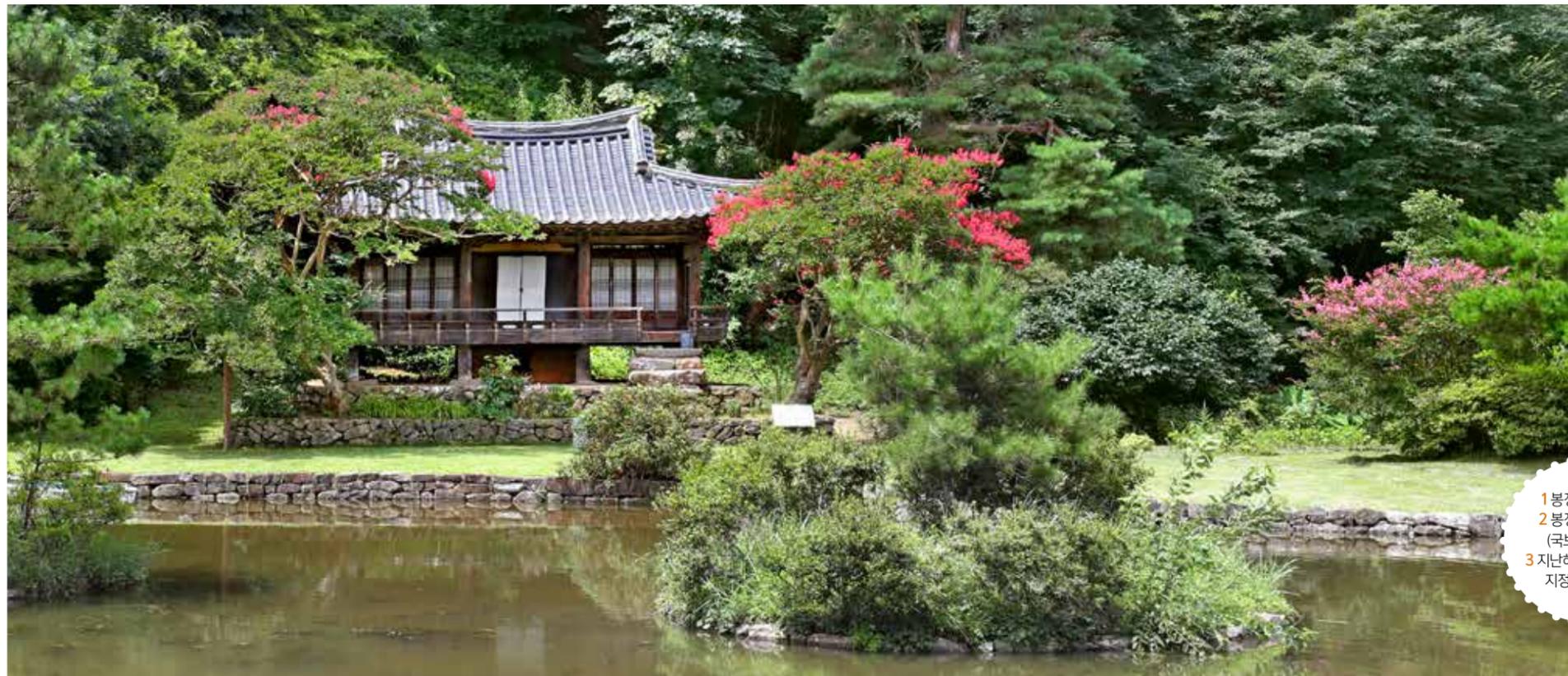


1

이번에는 봉정사, 지난해 12월 새로 보물로 지정된 체화정(楸華亭) 등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보석'을 찾았다. 천등산 봉정사는 도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가는 길이 험하지도 않아 바쁜 일상 속에서 여유를 찾고 싶을 때 훌쩍 방문하기 좋다. 2018년 유네스코가 세계유산으로 지정한 '산사, 한국의 산지 승원' 7개 사찰 중 하나다. 유네스코는 1천300년 이상 한국



2



- 1 봉정사 만세루
- 2 봉정사 대웅전 (국보 제31호)
- 3 지난해 12월 보물로 지정된 체화정

고유의 불교 문화를 계승하고 지켜온 종합 승원이라는 점을 높이 사, 이 사찰들을 세계유산 목록에 올렸다.

봉정사 극락전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이다. 봉정사에는 영화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 '나랏말싸미'의 촬영지로 유명한 영산암이 있다. 한국의 10대 정원으로 선정된 영산암에는 자그마한 건물 6채가 'ㄱ'자 모양으로 배치돼 있었다. 낮고 빼격거리리는 나무 건물들이 작은 뜰의 소나무, 바위와 어우러져 소박하고 은은한 한국적 미학을 드러냈다. 영산암의 작은 정원에서 고요하고 편안한 암자의 일상을 느낄 수 있었다.

체화정은 안동시 풍산읍에 있는 조선 시대 정자다. 진사 이민적이 영조 때(1761년) 지어 학문을 닦던 곳이다. 형 이민정과 함께 살면서 우의를 다진 장소이기도 하다. '체화'란 형제간 화목을 뜻한다. 산을 등진 정자 앞의 인공 연못이 멋스러웠다. 연못 안에는 방장산, 봉래산, 영주산을 상징하는 작은 섬이 조성돼 있다. 바로 앞으로 주도로가 지나가고 풍산시장이 가까이 있는데 전혀 번잡스럽지 않고 고즈넉했다. 붉은 배롱나무꽃이 체화정의 예스러운 정취를 더했다. ❶